

이영식 이사장 포항시 '사랑의 집짓기' 에 적극 동참



▲ 이영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 네 번째)과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은 지난 3월 14일 포항 사랑의 집짓기 사업협약식에 참석했다.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와 포항시는 지난 3월 14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포항 사랑의 집(가칭)짓기' 사업협약식(MOU)을 체결했다.

건설업계가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건설업계의 폭넓은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포항 '사랑의 집짓기'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이어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포항 '사랑의 집'은 포항시 남구 일월동 내 대지 1,000평에 30~40가구가 들어서는 독거노인 전용 공

동주택으로 25억여원을 투자해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각 건설단체와 업체로부터 모두 150억원의 성금을 모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땅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를 건립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1차 사업인 '용인 사랑의 집'은 지난해 말 입주를 마쳤고 2차 사업인 전남 장성군, 충북 제천시, 인천 강화군 등 3개 지역도 곧 착공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